

“조합원 피해 막으려…” 화순삼천리센텀주택조합 귀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조합을 해지,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한 화순삼천리센텀지역주택조합 사례가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장만할 수 있지만 사업과정이 순탄치 않고 조합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10일 (주)도건기업에 따르면 화순삼천리센텀지역주택조합의 업무용역을 맡은 도건기업은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전액 환불한 뒤 지난 8월 10일 조합 해산을 완료했다.

코로나 위기 도건기업, 조합 해산하고 124세대 납부액 전액 환불…업체 비용 등 20억 손실 감수

앞서 해당 조합은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3번지 일대(구 롯데슈퍼)에 2019년 10월16일 토지계약을 100% 완료한 뒤 올해 1월 화순삼천리센텀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조합원을 모집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되면서 주택전시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올 2월 주택전시관을 1차 휴관한 데 이어 6월까지 총 8차례 재오픈과 휴관을 거치는 등 조합원 모집중단과 진행을 반복해 사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

기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아파트를 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을 3~5년씩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조합원이 해지를 요청해도 그동안 사업진행에 부담금이 지출됨에 따라 해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화순삼천리센텀지역주택 역시 조합원 모집 차질에 그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한 것에 이어 해당 사업에 참여한 모든 업체의 비용까지 전액 지불했다.

업무용역을 맡은 도건기업은 지난 6월30일 조합 해지를 결정, 124세대의 조합원 해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7월16일 25세대에 대한 환불을 시작해 22일과 27일, 8월6일 각각 33세대씩 124세대에게 전액 환불을 완료했다.

이밖에 조합원 모집기간 지출했던 주택전시관 설립 비용과 광고비, 조합원 모집 수수료 등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비용까지 총 20여억원의 손실을 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추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정환 도건기업 대표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추가 분담금 없이 ‘내집마련’을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주택전시관 운영과 조합원 모집에 몇 년이 걸리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기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손해를 봐도 조합원과 참여업체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신념에 따라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집값 매매·전세 동반 상승폭 확대

지난주 매매 0.37%·전세 0.31% 올라…외지 투기세력·정부 규제 영향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이달 상승폭을 키우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의 ‘2020년 12월 1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지난 7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37% 상승했다.

이는 전주 0.1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광주는 이사철이 아닌 계절적 비수기에도 집값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최근 광주지역에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동 등 주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1월 첫째 주 0.05% 오른 것에 이어 둘째 주 0.08%→셋째 주 0.14%→넷째 주 0.19% 등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다섯째 주에도 0.18% 오른 뒤, 이달 두배 넘게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가격 역시 전주 0.25%에 비해 0.31% 오르

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11월 첫째 주 0.11%→둘째 주 0.12%→셋째 주 0.21%→넷째 주 0.22%→다섯째 주 0.25% 등 매주 오름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첫째 주 0.27% 상승해 지난주(0.24%)보다 오름폭을 키웠으며,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35%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상승했고, 수도권 인전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아파트값은 전주 0.44%보다 오른 0.50%로 역대 최고 상승을 보이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제5기 광주고용전문가 아카데미’ 수료식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지역 기초자치단체 일자리 담당과 대학 산학협력단 취업지원 담당, 기업지원 기관,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광주고용전문가 아카데미 제7차 교육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제7차에 걸쳐 진행된 아카데미에서는 일자리 정책 및 이슈, 우수 일자리 사업, 미래 유망직업과 인력양성 방안,

코로나 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과 지역의 과제 등 최근 고용·노동 현안 중심으로 구성·운영됐다.

채희석 광주상의 전무이사는 “앞으로도 참여자들과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겠다”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실질적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스스로 빛을 내는 삼성 ‘마이크로 LED TV’ 삼성전자는 10일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초소형 LED로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마이크로 LED TV’ 110형 신제품을 공개했다. 3.3㎡에 마이크로 LED 소자가 800만개 이상 사용돼 4K급 해상도를 갖췄고, 5.1채널의 자체 사운드를 통해 외장 스피커 없이 생생한 몰입감을 제공하는 ‘아레나 사운드’ 등이 적용됐다. 출고가는 1억7000만원으로, 12월 중 예약 판매를 진행한 뒤 내년 1분기 본격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공>

한전KDN ‘K-스타’ 협력기업 4곳 선발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 지원

한전KDN은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K-스타’ 협력기업 4개사를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K-스타 협력기업은 한전KDN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기업과 사회적기업 중에서 성과가 뛰어나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뽑힌다.

선발 기업은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자율형 상생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에너지ICT스타트업기업 부문에는 캐빈랩(주) 등 4개 기업이 선발됐다. 캐빈랩(주)은 사용자 참

여기반 에너지 신사업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개발해 에너지공동체 확산에 기여했다. 공장을 신축하고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주)원순아지매 등 2개사는 우수사회적경제기업으로 최종 선발됐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한전KDN은 지난 2017년부터 에너지ICT스타트업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기업은 무료 보안컨설팅 지원, 에너지ICT스타트업 육성, 협력연구개발사업, 동반성장협력대출, 국내외판로개척지원, 금융지원을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